시리즈 개요

타이틀: 15. 이승택Seung-Taek Lee

생성연도: 2005년

고유번호: 15LST

장소: 안양파빌리온 아카이브 서가

길이: 26.3 피트

배열: 001(작가 약력), 002(참고자료), 003(제안서), 004(과정) 순으로 배열

APAP

기록자: 정주영 | **기록일**: 2014년 3월 15일

작가:

1932년 함경도 고원에서 출생한 이승택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를 졸업했으며, 특정 장르와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실험적 예술활동을 선보여왔다. 성곡미술관(서울, 2012), MIA미술관(서울, 2004),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서울, 1997), 토탈미술관(장흥, 1989), 관훈갤러리(서울, 1988)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00년 이후 참여한 주요 단체전으로는 <한국호주현대미술 1976-2011>(국립현대미술관, 2011), <SOMA 현대미술 드로잉 전>(SOMA미술관, 2011), <광주비엔날레>(2010, 2004), <노마딕 파티>(아르코미술관, 2010), <신호탄>(국립현대미술관, 2009), <부산비엔날레>(2008, 2002), <당신은 나의 태양: 1960-2004>(토탈미술관, 2004) 등이 있다. 은관문화훈장(문화체육관광부, 2013),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백남준아트센터, 2009), 보관문화훈장(대한민국정부, 2000)를 비롯하여 다수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작품:

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의 초대를 받고 이승택은 삼성산 중턱에 기와를 소재로 한 작품을 제작했다. 숲 속 나무들 사이에 자리한 이 작품은 전통 가옥의 기와 지붕이 땅 속에 파묻혀 그 일부만이 지면 위로 드러난 모습이다. 작가는 삼성산을 하나의 큰 용으로 파악하고, 기와로 용의 꼬리를 쌓아 끊긴 능선을 이어주고자 했다. 완만한 곡선으로 솟은 '용의 꼬리'는 산의 능선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고, 작품에 사용한 천오백 여 장의 기와는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전설 속 동물의 비늘을 연상하게 한다. 전통적 소재에 주목해온 작가가 작품에 기와를 도입한 것은 미술대학에 재학 중이던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실기실 바닥에서 소조 진흙으로 만든 기와를 시작으로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하여 올림픽공원, 일본의 에치고-츠마리Echigo-Tsumari 지역 등에서 기와를 사용한 설치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범위와 내용:

'프로젝트 아카이브—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리즈 15. 이승택Seung-Taek Lee'은 <용의 꼬리>의 제작과 관련한 문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 소장자료이다. 본 소장자료는 1회 APAP의 초대작가로서 이승택이 작성한 스케치와 작품의 단면도, 정면도, 측면도에 해당하는 드로잉을 비롯하여 작품 설치 전 현장을 기록한 이미지와 기획팀에서 작가 연구를 위해 참조한 이전 작품 이미지를 포함하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또한 예산서, 견적서와 같은 안양공공예술재단이 작품 제작과 관련해 생성한 기록 사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목록화할 예정이다. 작품의 사진 데이터는 '프로젝트 아카이브 콜렉션—전자파일'에 별도 소장하고 있다.

자료목록:

번호	문서건명
002.01	참고자료: 이전 작품 이미지
004.01	과정: 스케치

004.02 과정: 드로잉: 단면도(복본 2매)

004.03 과정: 드로잉: 제작 방식 포함(작성자 불명)

004.04 과정: 드로잉: 정면도

004.05 과정: 드로잉: 측면도

004.06 과정: 제작 과정 기록: 작품 설치 전 현장 기록

004.07 과정: 제작 과정 기록: 작품 설치 전 현장 기록

004.08 과정: 제작 과정 기록: 작품 설치 전 현장 기록

004.09 과정: 제작 과정 기록: 작품 설치 전 현장 기록

004.10 과정: 제작 과정 기록: 작품 설치 전 현장 기록

APAP